

“용기있게 내딛는 한걸음이 변화 이끈다”

네번째 유라시아 횡단 떠난 전남대 출신 탐험가 김현국씨

모터사이클 타고 부산서 암스테르담까지 왕복 2만5천km 달려 광주 동구 연구용역·문화계 협업 통해 새로운 콘텐츠 구현도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 내면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하고 외로운 광야에 있을 지라도 내딛는 한걸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계 최초로 모터사이클을 이용해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 탐험가 김현국(51)씨가 26일 네번째 유라시아 대장정을 떠났다.

김씨는 ‘아시아 하이웨이 6호선(AH6) 트랜스 유라시아 시리즈 4’라는 이름으로 4번째 탐험을 시작했으며, 이번 여정에서는 부산-블라디보스토크-시베리아-모스크바-암스테르담까지 왕복 2만5천km를 달린다.

‘아시아 하이웨이’는 아시아 국가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와 아시아 32개국이 함께 추진하는 55개 노선, 총 14만km에 걸친 국제 도로망 구축 사업이다.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아시아 하이웨이 6호선은 러시아 횡단도로와 대부분 구간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그는 전남대 산학협력관에서 이곳에서 연구기관 세계탐험문화연구소 등을 운영 중이다.

김씨는 “유라시아”에 대해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터사이클로 횡단하면서 유라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 등 다양한 정보를 적립·구현하기 위해 24번째 탐험가의 길을 걷고 있다.

김씨가 대한민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탐험가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대학생 때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는 “87학번 전남대 법대 신입생으로서 그 당시 도서관 공부보다는 현장의 시위 경험이 청년기의 주된 경험이었다”면서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옳은 일을 위해 뜻을 모으니,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관철시켰던 만큼 청년의 열정으로 ‘노력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여 “대학을 막 졸업하고 27살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고, 가지고 있는 일에 의미있는 도전을 더욱 하고 싶었다”면서

“대한민국은 대륙과 연결돼 있지만 분단된 상황으로 바다에 고립돼 있는 섬과 같다. 하지만 지하 자원의 보고이자, 거대한 유라시아를 향해 뻗어 있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씨는 이번에 떠난 네 번째 유라시아 행은 문화적 협업 등을 통해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씨와 광주 동구는 협업을 맺었는데, 동구에서 출정식을 가졌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마이칼 호수까지 이르는 4천km의 구간엔 대해 문화자원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게 됐다.

또 작곡가 김현욱씨, 구름을 그리는 작가 강은씨, 이상록 피아니스트, 라프레스코 오너이자 셰프 이영환씨 등 지역의 문화계와 협업으로 그가 횡단을 하며 얻은 유라시아와 연관된 가치를 전달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써 구현할 계획이다.

김씨는 이 시대 청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매번 만남의 준비를 다해 여정에 임하지만, 떠나고 싶은 마음과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낯선 곳을 간다는 것은 불편하다. 하지만 딱 ‘한 걸음’이다.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작은 발걸음이 나를 비롯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환히 미소지었다.

/오승지기자

김준영 폴리텍대 광주캠퍼스 교수 ‘배터리 관리 시스템’美 특허 등록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학장 도재운)의 자동화시스템과 김준영 교수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관한 미국 특허(Method for predicting battery health in consideration of temperature of battery management system)를 등록했다.

특허의 내용은 배터리의 건강상태(SOH)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통해 작동 중인 내부 배터리의 전압, 전류, 온도를 측정하고 배터리의 초기 충전상태(SOC)를 자동으로 계산하게 된다.

배터리의 건강상태는 배터리의 용량이 큰 영향을 미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저장장치(ESS) 화재 등 재난을 야기할 수 있다. 특허를 받은 이 시스템으로 배터리 건강상태를 사전에 예측해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광주 및 그전산단 조성과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면 전기차 확대 생산과 함께 배터리 수요 및 관리의 중요성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는 자동화시스템과-사물인터넷, 전기과-전력ICT 등 미래성장동력학과를 운영하면서 창조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종민기자



광주여대 ‘MAUM Festival’ 성황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제21회 MAUM Festival’ 행사를 성황리에 치렀다.

이번 ‘MAUM Festival’은 스승의 날과 성년의 날을 기념해 주제에 맞게 청바지를 입고 진행했던 ‘청바지(청춘은 바로 지금) 데이’ 행사와 매년 가을에 진행하던 ‘송강축제’를 통합해 더욱 의미가 컸다.

학생처(처장 이준수)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이희빈)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1부 ‘청춘은 바로 지금 감사와 축하의 무대’와 2-3부 ‘LaLa Festival’로 나눠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과 교내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총장은 “MAUM Festival이 성숙된 자제와 마음으로 나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송강가족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준 총학생회와 재학생 및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종민기자



광주보훈청,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광주지방보훈청(청장 하우성)은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그간 전수되지 못하고 있던 독립유공자 훈장을 후손의 자택을 방문해 전수했다.

지난 23일 독립유공자 김석순 선생의 손자 김상채씨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독립유공자 채동발 선생의 조카 채종묵씨에게 대통령표창이 각각 전달됐다.

김석순 선생은 1917년 조선독립의군의 의병활동을 위한 군자금에 지원해 보안법 등으로 징역 2년의 옥고를 치렀고, 채동발 선생은 1919년 영암보통학교 생도로 재학 중 독립만세운동을 하다가 체포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김석순 선생의 손자 김상채씨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조부님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국가에서 직접 찾아줘 감격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 청장은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훈장을 후손께 한분이라도 더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결혼

●나영주·김미덕씨 차남 병희군, 이권수(교은건설 회장)·김숙씨 장녀 미지양=6월1일(토) 낮 12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다리아홀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녹조근정훈장’ 영예

지나해 재난시책 추진 공로

전남도는 26일 “전동호 건설교통국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에서 녹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은 적극적인 재해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공로가 큰 유공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 국장은 지나해 자연재난과장으로 근무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나해는 폭염과 가뭄, 초대형 태풍 콩레이·솔릭, 포항 지진 등 유례없이 다양한 자연재해가 한반도를 강타한 한 해였다.

전 국장은 이러한 자연재난을 총괄 대응하는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으로 각종 재난을 대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왔다. 특히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통해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선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 국장은 “도를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교통국장으로서는 전남 주요 SOC를 철저히 관리해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포상에서는 문인기 전남도 자연재난과 하천관리팀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김재정기자



배우 유해진,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인간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배우 유해진씨가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로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8회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유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유씨는 지난 1997년 데뷔 이래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는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 주제인 ‘휴머니티(HUMANITY)’와 가장 적합한 배우로 인간적이고 유머스러운 이미지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2017년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광주 시민 역할을 출현해 지역과 인연이 있는 배우이고, 유씨 개인적으로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어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이미지에

적합하다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이용섭 시장으로부터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은 유씨는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디자인비엔날레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세계수영선수권대회로 높아진 광주의 국제적 도시 위상에 걸맞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성공 개최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씨는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요행사 참석, 홍보 영상물 제작, 휴대전화 콜러리 서비스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휴머니티(HUMANITY)’를 주제로 오는 9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광주디자인센터 등에서 개최된다. /최권범기자

국립나주병원, 직업재활훈련생 7명 바리스타 자격 취득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은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재활훈련 중인 입원환자 7명이 최근 바리스타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최종 실기시험에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입원환자들의 직업재활을 고심하던 나주병원은 정신장애인 특화 직업재활훈련장(커피 스토리)을 신축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직업훈련교사 등을 지원받아 바리스타 전문교육과정을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했다.

병원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평가를 통해 취업 및 재활의지가 강한 7명의 훈련생을 선발해 지속적 관리를 통해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 합격할 수 있었다.

바리스타 전문 교육과정은 정신장애인 특화 직업훈련과정으로서 국립나주병원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이



다. 바리스타 2급 자격을 취득한 훈련생 7명은 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병원 내 자체 카페와 지역사회로 현장실습 및 취업에 나설 예정이다.

윤 원장은 “이번 자격취득으로 정신장애이라는 사회적 제약을 극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면서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승지기자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어린이교통안전 그림대회’ 성료

광주교통문화연수원(원장 조광항)은 지난 25일 광주어린이교통공원에서 제10회 교통안전 꿈나무창작문화예술제 ‘어린이 교통안전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시내 유치부, 초등학생 등 7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광주시장상에 김지원(키즈 윌유치원)·정예원(하남초)·김태희(장덕초)·강도연(진월초), 광주교육감상에 김주현(신미라유치원)·김가연(근슬유치원)·양지은(양산초)·권유민(새별초) 등 8명이 공동 대상을 차지하는 등 모두 78명이 입상했다. /최권범기자

전남대 전산동아리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대회’ 대상

전남대학교 전산동아리 학생들이 뉴스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전남대 정보전산원(원장 이철우 교수)이 지도하는 전산동아리 ‘एको노베이션’의 회원들은 지난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2019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모먼트’란 참가팀명으로 이 대회에 참가한 서인하(사회학과 4), 김기표(산업공학과 4), 배성희(전자컴퓨터공학부 4) 학생은 뉴스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처리와 사용자 맞춤형 프로토타입을 제시한 ‘여행에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행자 위치기반 뉴스 앱’을 출품해 전국 95개 참가팀 가운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김종민기자



광산구, ‘맘편한광산’ 앱 활용 지역 순찰 강화

광주 광산구가 안전 커뮤니티 매핑 앱(app)인 ‘맘편한광산’을 활용해 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광산구는 26일 “안전광산 프로젝트의 하나로 광산경찰서,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수원하나중학교와 ‘수원동 순찰강화 캠페인’(community mapping day) 행사”를 개최했다.”

커뮤니티 매핑은 주민들이 함께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를 지도에 표시하는 활동으로 광산구에서 만든 안전 커뮤니티 매핑 앱(app)인 ‘맘편한광산’을 활용한다.

이날 수원동 캠페인의 주제는 ‘순찰강화 지역 탐색’으로 80여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후미지거나 어두운 곳, 취약·위험인물 출몰 지역 등 순찰을 강화했으면 하는 동네 곳곳을 찾아 ‘맘편한광산’ 지도에 표시했다. /광산=고효석기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중섭별세(배우자:윤선옥님) 김재환, 은혜, 은서씨 부친상=발인:28일(화) 오전7시50분, 장지:화순불문사(화) 연락처:본관2층7호(250-4407)

▲김병선별세(배우자:김용순님) 김영연, 영만씨 부친상=발인:27일(월) 오전10시, 장지:화순동북면선영(화) 연락처:본관지하1층3호(250-4403)

▲노길례별세(배우자:박도남) 박정남, 정환, 진순씨 모친상=발인:28일(화) 오전8시, 장지:영락공원자연장(화) 연락처:신관3층302호(250-4472)

▲노길례별세(배우자:김용순님) 김영연, 영만씨 부친상=발인:27일(월) 오전10시, 장지:화순동북면선영(화) 연락처:본관지하1층3호(250-4403)

▲노길례별세(배우자:박도남) 박정남, 정환, 진순씨 모친상=발인:28일(화) 오전8시, 장지:영락공원자연장(화) 연락처:신관3층302호(250-4472)

www.greenfuneral.co.kr